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19.10.26)

대학원생 교육A/01/

# 헤겔의 인정이론과 다문화교육

양정아(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수료)

## Ⅰ. 머리말

세계화의 진행과 지식정보화가 확장에 따라 국민국가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었고,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인구유입과 경제 및 문화 교류의 확대로 인해 우리 사회 또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대규모 외부집단의 유입은 공동체 의식과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으며,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질적인 집단과의 대립과 갈등이 촉진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이질적인 집단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공존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장치로서 등장했으며, 다문화교육은 우리시대 교육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문화 간 상호 공존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요청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교육의 기반이 되는 이론에 대한 탐색 또한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공존을 지향하는 이론으로서 문화 간 만남과 소통 그리고 섞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설한, 2005: 198). 다문화주의는 기존의 문화에 이질적인 문화를 흡수하여 통일하고자 했던 동화주의와  문화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단순한 공존만을 추구해 나갔던 문화상대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와 달리 동일선상의 문화 공존을 인정하지만, 무조건 적인 인정이 아니라 문화 간의 융합과 소통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주의는 상대주의적인 개념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문화 상대주의 적인 입장에서 진행되거나 혹은 동화주의적인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상적으로 볼 때도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상대주의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다문화주의를 제시한 학자들의 개념들은 일반적 개념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제시한 학자들의 본래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주의를 제시한 대표적이 이론가로는 찰스 테일러와 윌 킴리카가 거론된다. 공동체주의자인 찰스테일러는 헤겔의 인정 이론을 기초로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로서 다문화주의를 정치이론으로 제시하였으며, 윌 킴리카는 이 이론을 토대로 통섭적 시각에서 자유주의와의 모순을 해결하여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확립하였다. 찰스 테일러는 소수문화 공동체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자기의식)에 상처를 일으키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위해 이들을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를 통해 공동체적인 다문화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찰스 테일러의 공동체적인 다문화주의는 서구 사회의 모델인 자유주의라는 가치와 충돌을 일으켜 보였는데,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주의임을 주장한 것이 윌 킴리카이다(Kymlicka, 2006; Taylor, 1994).

다문화주의 담론의 핵심에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가 위치하고 있는데, 찰스 테일러는 헤겔의 인정이론, 특히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논리적 근거로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찰스테일러의 인정은 일반적인 '인정'이 아니라 헤겔의 이론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헤겔에 대한 이해 없이 다문화주의와 이해하는 것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잘못된 오해를 가져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의 이론을 기초로 다문화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다문화주의 이론의 논리적 근간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주의 논의의 기반이 되는 '인정'을 중심으로 자기의식의 형성과 주인과 노예의 비유 그리고 이성과 인륜성에 관한 헤겔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에 기반이 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문화교육이 가져야 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을 탐색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에서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확보했던 헤겔의 이론을 헤겔의 저작『정신현상학』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특히, 자기의식의 형성과정과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통한 인정, 그리고 이성을 통해 인륜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과 인정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헤겔의 이론을 기초로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논의를 전개해 가는가를 통해, 다문화주의 개념이 갖는 특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다문화주의 이론이 어떻게 교육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찾고, 다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 Ⅱ. 헤겔의 인정이론

### 1. 자기의식의 형성

자기의식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구조로 쓰고 있는 변증법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변증법이란 그리스어 dialegein으로서 "해석한다"를 의미한다. 그리스어 dialegesthai는 "Dialog"로서 "숙고하고 논증을 정리하다"와 "담화하다"라는 뜻을 또한 담고 있다. 헤겔에게 이 단어는 사유의 운동을 지칭한다. 사유 운동의 출발점은 현존하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 사유의 운동 속에는 구별, 즉 현존하는 것 그 자체에 결부되어 있는 어떤 타자가 출현한다. 이 타자 안에서 이 구별이 지양되고 원래적인 존재의 통일성을 되돌아간다.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벌어지는 부정과 부정의 결과는 무(無)가 아니고, 부정 혹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풍부해진 지(知)의 결과와 함께 하는 절대적인 부정이 일어나야 한다 (Ludwig, 2002: 253-255).

헤겔의 변증법을 정리한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논리는 헤겔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헤겔이 사용한 용어는 "즉자-대자-즉자/대자"라는 용어이다. 즉자존재는 현존재자이며 단순히 존립하는 존재로서 그 자체로 머물러 있고, 반성 없이 자신과 하나인 사물의 본질이다. 대타존재는 즉자를 변조시키지 않으면서 즉자에 대해 달리 존재하는 즉자 존재의 최조의 부정이며 사물의 현상을 지칭한다. 대자존재는 두 번째 부정 존재로 부정된 즉자와 즉자의 부정된 반대가 지(知)에 이해서 파악되고 통일로 합류된다. 대자 존재는 부정일 뿐 아니라 개념 안에서 사용되는 통일이다(Ludwig, 2002: 253-255).

인정은 자기의식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식의 형성과정이다. 우선 의식은 사물은 사물의 고유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나는 구별들 가운데 상이성을 발견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감각적 확신 안에서 어느 하나도 직접적이지 않고 매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구별은 다른 것과 관계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사물은 결국 고유한 본질, 그리고 자신의 동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과 관계해야 한다는 모순 속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사물은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결국 사물은 통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계 위에 놓이게 된다(Hegel, 2005: 133-148).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순은 지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든다. 지각의 단계에서 대상은 일반성의 단계가 지양되고, 특성을 지닌 사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사물은 단일한 사물로서만 규정될 수 있고, 결국 사물은 보편자인 동시에 개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의식은 개별과 보편으로 대립되는 양극은 나란히 병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의식은 지각의 운동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 의식은 대상이 항상 일자와 다자, 대자와 대타라는 모순되는 것의 통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강성화, 2004, 60-68)

의식은 이제 오성에 단계에 이르게 된다. 오성은 다양한 계기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무제약적이고 보편적인 힘을 발견한다. 오성은 힘을 변증법적으로 그려내고자 하며, 대타존재를 힘의 발현으로 부른다. 그러나 힘은 대자존재이고, 잠재적 힘은 결국 내부에 존재한다. 오성은 사물이 힘을 갖는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자신의 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결국 대상에 대한 의식은 이질적인 현실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지(知)에 대한 의식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헤겔에 있어서 자기의식이다(Ludwig, 2002: 82-92).

2. 인정과 인륜

지(知)는 대사적 지(知)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지(知)에 이르게 된다. 이 자기의식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기 위해 욕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자기의식은 주체와 객체로 단순히 구별되는 추상적 구별을 실재하는 구별을 발전시켜서 일면적 추상성을 지향하고 객관성과 실제성을 얻으려는 구체적인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 때 타자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해결되지 못하는 욕구로 인해서 타자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관계해서는 자기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욕망하는 자기의식으로 인해 타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또 다른 자기의식이 나타나게 된다. 이중적인 자기의식은 타자대 타자의 관계에 처하게 된다. 이 두 개의 자기의식은 자립적인 가치로 '인정'해주기를 욕망하며, 다른 의식을 전락시키려고 하는 생사를 건 투쟁이 이루어지게 된다(강성화, 2004: 83-93)

의식 간 생사를 건 투쟁에서 생물체의 본질인 생명까지 위협하는 생존에의 투쟁이 되고, 한 의식은 죽음이 두려워 패배하게 된다. 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자는 자립적인 존재로 주인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 한 패자는 노예가 된다. 승자는 패자의 '인정'을 받게 되고, 패자는 사물을 가공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주인의 승리는 패자의 '인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립적이다. 생존을 건 투쟁에 패배하여 생의 포로가 된 노예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 존재 자체의 불안을 체험하고, 자연적 현존에 안존하는 태도를 버리게 된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개별의지와 아집을 버리고 노동함으로써 욕구의 내적인 직접성을 지양하고 주인에 대한 공포에서 지혜의 단초인 보편적 자기의식으로의 이행을 성취한다(강성화, 2004: 94-106; Hegel, 2005: 220-234) .

의식은 분열된 자기의식을 통일하기 위해 이성으로 이행하는데, 이성은 자신이 모든 것의 실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등장한다. 초기 이성은 확신성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관념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은 자신이 실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으로의 이행 이전에 자기의식은 자신에게 자기 본질의 부정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세계와 자기 자신의 현실을 희생시켜서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보존하는데 몰두 했다. 그러나 자기의식은 그 자신이 실재한다는 것이 현실에 대한 의식

이외에 어떤 것일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이성을 성립시킨다. 즉, 이성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의 실재라는 것이 대한 의식의 확신이다(강성화, 2004: 118-128)

실재성을 얻기 위해 이성은 관찰로 눈을 돌린다. 관찰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순수성에선 본 자기의식에 대한 관찰과 자기의식과 그의 현실의 관계에서의 관찰이다. 전자는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법칙을 찾는 것이고 후자는 심리학적 법칙이나 관상학과 골상학을 의미한다. 관찰하는 이성은 의식의 운동을 통해 감정적 확신에서 지각으로 그리고 오성의 단계를 발견 하게 된다. 그러나 관찰을 통해 이성은 이성적 필연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그 결과 이성은 대상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위를 통해 세계에 대해 자신을 실천하고 창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실천적 이성의 궁극목적이 바로 '인륜의 세계'이다. 인륜이란 독자적인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개체들의 본질이 절대적인 정신적 통일을 이룬 상태로, 보편적인 자기의식이다(백종현, 2000: 218; Hegel, 2005:312-439). 다시 말해서 인륜적 실체를 통해 타자의 자립성 속에 타자와의 완전한 통일을 직시하는 자기 의식적 이성의 실현이 완성된 실재를 갖게 된다. 보편적 정신 속에서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인륜적 단위를 헤겔은 민족이라고 지칭한다. 정리하면, 개인은 민족 안에서 보편적이고 개별적 본질이라는 자신의 규정에 도달하게 된다(강성화, 2004: 134-150).

3. 인정이론

헤겔에 따르면 결국 자아가 겪는 분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맺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정(recognition)'이란 자아와 타자의 동일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의 동일성은 동질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고유성과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담보하게 된다. 개인의 '인정'이라는 비이성적 추동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의식하는 가운데 의지로 전환 되고, 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이 충동이 인륜적 삶을 발전시킨다(Hegel, 2005: 378-406).

헤겔의 인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헤겔의 인정 이론의 구조를 규명하려는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은 루드비히 짚(Ludwig Siep)의 시도이다. 그는 인정을 '개체들의 상호관계로서의 인정'과 '개별의지와 보편의지 간의, 도야된 자기와 민족정신 간의 인정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정의 두 단계는 '사랑과 투쟁의 종합으로서의 인정'과 '우리 안의 나의 인정'으로 전개된다. 게오르그 아이헨제어(Georg Eichenseer)는 1803-1806까지의 헤겔 인정의 본질은 투쟁으로 보고 3단계로 구분한다. 헤겔의 인정은 투쟁으로서의 순수한 인정과 이러한 인정의 사회적 재생산 그리고 지배력을 지니는 법률로서 인정으로 구분된다. 알렉상드르 코제브(Alexandre Kojeve)와 부르크하르트 투쉬링(Burkhard Tuschling) 또한 헤겔의 인정을 상호담론으로 본 하버마스를 비판하면서 인정의 투쟁으로 설명한다(남기호, 2009: 218-221). 공통적인 것은 헤겔의 인정에는 사랑과 투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헤겔의 인정을 살펴보자.

타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헤겔이 왜 '인정'을 시작으로 인륜적 삶을 발전시키려하는지에 대해서 헤겔은 분명하게 설명한다. 『예나 체계기획』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정신적인 인정함 자체"이기 때문이다(기호, 2009: 222). 인간은 정신적으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활동성 자체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를 인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사랑과 관련하여 인정은 의식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정은 정신적인 인정함 자체에 이르게 되는 사랑의 구조에서 밝혀질 수 있는데, 사랑은 사회 철학적 범주가 아니라 의식 이론적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를 통해 총체적 의식을 지닌 자립적인 개체가 대자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남기호, 2008: 101-116.) 자립적인 개체가 대자적으로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립적인 존재자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개체가 무엇을 인식하거나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본질적으로 의식은 자립적인 개체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성된 개체는 정신적인 인정함(Anerhennen) 자체로서, 정신적으로 인정하는 활동성으로 존립한다.

둘째로, 헤겔의 인정은 외적으로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내재적인 특징을 가진다. 피히테는 개체란 다른 이성본질과의 대면을 통해 규정된 이성 본질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자유의 상호적 제한을 통해 서로를 자유로운 이성본질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체로서 자기규정은 공동체적이고 상호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헤겔의 인정은 나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인정하는 관계로서 직접 대면하고 투쟁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반성적으로 획득된다.

셋째로, 헤겔의 인정은 사랑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활동이 시작되어야 사회적 활동을 갖춘 개체로 발전한다. 사랑은 총체적 의식을 지닌 두 자립적 개체들의 자연적이고 우연적으로 그러나 의식적으로 성취되는 합일의 활동이다. 이러한 사랑의 활동으로 형성된 개체는 정신적 인정함 자체를 즉자적인 본질로 만든다. 그때서야 개체는 사회적 활동성을 갖춘 개체로 형성된다(남기호, 2009: 226).

인정은 인정투쟁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다. 인정투쟁은 모든 실재적인 사회적 활동의 논리적 시작 내지 근거를 의미한다. 헤겔에게서 인정개념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1802년 자연법 논문에서인데 여기서 인정 개념은 '비유기적인 자연'으로 현상하는 압도적인 것과의 '투쟁 속에서의' 운명의 '인정'으로 설명된다. 인륜성의 체계에서 헤겔은 인정을 부모와 자식 간의 보편적 상호작용과 도야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며 그 다음엔 언제나 개별성 자체 내에서의 총체성으로 있는 개체의 다른 동일한 개체와의 사회적 관계로서 설명한다. 정리해보면 인정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개체가 총체적 의식을 지닌 자립적인 개체의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전체 본질과 매듭지어져 있는 단일 정체성을 의미하며, 각 개별적 소유물을 둘러싼 갈등은 전체를 둘러싼 갈등이 된다. 모든 것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자와 갈등을 빚더라도 그것은 생사를 건 투쟁이 된다. 즉, 총체적 의식을 지닌 자립적인 개체가 벌이는 첨예한 갈등이 바로 인정투쟁이며, 이 투쟁은 유한자의 존재론적이 모순에서 근거한다. 의식의 총체성이 개체의 개별성으로 실현되려고 할 때 절대적 배타성이 인정 관계의 투쟁적 특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정투쟁이 실재성을 지니는 것은 공동성과 상호적 의존성이 엄청난 체계로 묘사되는 시민사회이며, 인정투쟁 이론은 시민 상태의 작동원리가 아니라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사회 이론에 대해 메타이론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투쟁의 해결은 투쟁을 통한 인정의 지기자양과 개체의 반성능력에 근거한다(남기호, 2009, 235). 나의 승리는 총체적 의식을 지닌 나의 자립성의 인정이자 타자의 죽음 적어도 그의 의식의 지양이다. 이것은 절대적 모순을 발생시키는데 죽은 자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낯선 자립적인 것으로서의 존립은 자립적인 존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립을 지양하기 때문에 개체는 투쟁 이전에 미리 투쟁을 통해 지양되는 인정과 지양되는 자신에 대해서 반성한다. 개체는 투쟁 속에서 실재적으로 지양되기 이전에 관념적으로 나 자신을 지양하고, 자기 자신을 지양하는 총체성으로 존립한다. 이 존립은 인정된 것으로 존립이다.

투쟁이전에 관념적인 자기지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로 이것은 상호적으로 일어나는데, 상호작용적인 자기지양이 없다면 투쟁은 불가피해진다. 각자는 지양을 통해 실재적으로 존속하게 된다. 개별성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모습이 실현 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개별성을 지양하고 보편성의 담지자가 되게 된다. 자기자양이 일어나지 않고 개별성이 불완전하게 보편성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투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활동의 영역에서는 범죄, 부의 집중과 빈곤, 혁명, 전쟁 등으로 드러나게 된다. 둘째로 관념적인 자기지양은 실제적인 자기지양을 추동시키고, 이로 인해 각자는 실재적으로도 인정된 것이 된다. 이것은 자기지양의 활동의 차후에 다루어지는 교환, 계약, 범죄의 처벌, 노동, 복지, 입법 등의 활동의 기반이 된다. 각자는 현존은 지양하는 활동을 통해 인정된 것으로 존립한다(남기호, 2009, 238-239).

자기지양을 통한 상호인정은 투쟁을 극복하고 된 것으로 개별적인 총체성에 도달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의식' 혹은 '절대적인 정신'으로도 언급된다. 이것은 절대적 실체로서 민족정신이고, 민족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개체의 운동은 절대적 인륜성이다. 또한 의식적인 개체 자신에 의해 인정투쟁의 결과는 실재적으로 획득되어 진다. 각 사회적 주체에 의해 실제로(realiter)이 실현되어 간다. 민족과 작품, 언어활동과 언어, 노동과 도구 및 재산 등에 의해서 실재적인 사회적 인정이 벌어지게 된다 (Hegel, 2005).

요컨대 인정은 사랑과 투쟁의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인정단계에서 문제가 발생 할 때 그것은 범죄와 같은 투쟁으로 이어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자기지양을 통해서 총체성을 인정한다. 자기지양은 상호작용적이며, 실제적인 자기지양을 일으킨다. 실제로 인정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인정과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 Ⅲ. 다문화주의와 타자의 인정

헤겔의 인정이론을 통해 다문화주의 이론을 정리해보면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과는 구분되는 개별성과 보편성의 변증법적 통합을 지향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타자의 정체에 대한 인정의 수사학을 전제로 한다. 문화다원주의가 개개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아래 상호 고유성을 인정한다는 것(김의수, 1999)인데 비해,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인 가치에 사실적인 인정을 취하지만 문화 각각 유형에 동일한 방식의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Abbey, 2000:135-141; Taylor, 1994), 보편화 가능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나아간다.

다문화주의는 근대성에 대한 극복으로 이루어진다. 근대의 서사인 '자율적 자아'의 보편화 가능성은 자아의 내성에 편향적 집착을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 자아는 역사적·문화적·전통적 권위로부터 이탈하였다(Taylor, 1992). 이러한 점에서 자아는 '탈맥락적(disengaged)' 자아관이라고 규정된다(Abbey, 2000:84-46, Taylor, 1985: 188-210). 또한 '정상 시민권(normal citizenship)'이라는 백인 이성애자에게 맞추어진 국민 모델로 인해, 삶의 유형들은 주변화 되거나 배제 되었다(Kymlicka, 2006: 455-456). '정상 시민권'에 맞추기 위해 근대 정부는 '동화'를 조장했으며,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적자(the improper)'는 대체되거나 축출되었다(Bauman, 1991:105).

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정의 정치학'이다. 인정의 정치학은 '인간의 정체성은 주체

와 객체 양자 간의 "대화적(dialogically)"으로 진행되는 상호 인정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입장에서 기인한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타집단)으로부터 동등하고 유가치한 존재로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서 획득가능하다. 불인정(nonrecognision)이나 오인정(misrecognition)은 타자에게 상처를 주고, 타자의 존재 양식을 변형시키다(Taylor, 1994: 25-27). 그렇기 때문에 인정의 정치학이 요구되는데, 인정의 정치학에서 요구되는 덕목은 '인정'이다.

프레이저는 인정의 정치학은 다양한 (소수) 집단의 정체성이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추구한다. 그리고 문화적 신분의 위계구조(cultural status hierarchy)에 내재된 불평등, 곧 문화적 지배(억압), 불인정, 경멸과 같은 문화적 부정의(cultural injustice)의 해결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것은 경제적 착취와 배제, 주변화, 기회 박탈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부정의를 해소하려는 재분배의 정치학(politics of redistribution)'과 비교된다((Kymlicka, 2006: 462-464; 송재룡, 2009: 89). 재분배의 정치학이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의 정치학인데, 사회경제적 위계구조의 결정에 따라 신분적 위계구조가 종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제거되면 신분적 위계 기제를 포함하는 문화적 불평등의 구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Kymlicka,, 2006: 461-563; 송재룡 2009: 89). 그러나 재분재의 정치학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위계구조가 문화적 위계구조와 정비례적이지 않은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유색인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낮은 위상을 부여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Kymlicka,, 2006:463-465, 송재룡 ,2009: 90).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의 정치학과 인정의 정치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인정의 정치학은 1990년대에 이르면서 전면에 부각되게 되었다. 인정의 정치학은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집단들의 정체와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의 정치학은 차이의 정치학(politics of difference)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인정의 정치학은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개념을 설명이 되는데, 이 또한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자들이 규정하는 소수자 집단의 착취, 배제, 주변화, 기회 박탈과 같은 삶의 조건을 해소한다는 의미를 지닌다(Honneth, 2011: 1996). 이러한 점에서 인정의 정치학은 투쟁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인정의 정치학에서 비롯된 다문화주의가 인권운동으로 이어진 것은 이러한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정의 정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이다. 테일러는 1992년『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에서 "인정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찰스 테일러에 따르면 근대 이후 계급이라는 위계질서의 붕괴는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와 함께 개인의 정체성, 개별화된 정체성(individulaized indentity)를 부상시켰다. 계급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형성되었던 정체성은 개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때 주관적 전이(subjective turn)가 일어나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면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진정성(authenticity)의 개념이 등장했고,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했다. 찰스 테일러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의 실현은 타자와의 대화(dialogue)를 통해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개별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하지만 근데 이후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다소 무시되었고 절차적 자유주의(procedural liberalism)에만 관심을 쏟게 되었다. 테일러는 이제 절차적 자유주의 대신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실질적 자유주의(substantive liberalism)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오승은, 2012: 6-8).

그렇다면 실질적인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진

정성(authenticity)와 자아정체성(self-identity)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테일러는 자아의 원천들: 정체성의 형성 (1989), 불안한 사회 (1991)와 같은 저서를 통해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지적한다. 현대 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은 개인주의와 탈주술화를 통한 도구적 이성의 지배로 발생한 의미의 상실과 도덕의 지평의 상실, 만연하는 도구적 이성에 대해 직면하여 소멸하는 삶의 목표들, 자유의 상실로 발생하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진정성(self-authenticity)가 필요한데, 이것은 Hegel에게 있어서는 대자존재를 의미한다(백훈승, 2006: 365). 자기 진정성(self-authenticity)은 인간관계를 수단적으로 여기는 것이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확립이 된다.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진정성(self-authenticity)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인정을 통해서 획득하는 자아 정체성의 개념은 다양한 문화공동체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도 적용가능하다. 타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며, 인정이 획득되지 않을 때 사회적 갈등이 촉발된다. 이것을 헤겔의 변증법을 기반으로 설명해 보면, 각자는 어떤 것에 일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타자가 되기도 한다. A를 일자라고 한다면 B는 타자가 되고, B를 일자라고 한다면 A는 타자가 되어서 결국 양자는 타자가 된다. 일자가 일자인 것은 타자가 있기 때문에 일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존재해야 한다. 타자는 일자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계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진정성(self-authenticity), 일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존재를 인정해야하고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자유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백훈승, 2006: 364-367).

실질적인 자유주의는 결국 헤겔이 논리를 기반으로 한 타자에 대한 인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타자에 대한 인정은 일반적인 용어로서 인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헤겔의 용어로서 인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헤겔이 말하는 인정이란 무엇인가? 헤겔의 인정은 자신과 타자를 대자적이고 자유로운 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투쟁은 이것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하나의 자아의식이 다른 자아의식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를 자유롭고 이성적인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호승인이 이루어진 상태를 헤겔은 정신(Geis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정신(Geist)라는 개념은 사랑(Liebe)이라는 개념이 생(Leben)이라고 대치되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부분이 전체와 통일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통일 상태를 의미한다. 인정투쟁은 자연 상태에 있는 개별자로서 인간이 자립적이며 자유로운 자라는 사실을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며 인정투쟁을 통해서 국가라는 인륜적 공동체가 성립되는 것이다(백훈승, 2006: 374-376).

결론적으로, 문화를 인정의 과정을 통해 당사자(집단) 개개의 문화적 지평은 상호간의 끊임없이 융화되어가는 순환의 과정에 놓이게 된다(Talor, 1994: 72-73). 인간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조망하고, 모든 공동체는 언어와 특징적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행위들은 언어와 문화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인간은 강한 가치 평가를 통해 질적이고 성찰적인 삶의 방식들을 형성해낸다(Taylor, 1985: 18-27). 이러한 능력으로 문화는 융합되어 가고, 타자의 정체성이나 문화 가치에 대한 인정은 상대주의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낸다(송재룡, 2009: 97-98).

## Ⅲ. 다문화교육에 주는 시사점

다문화교육은 인정투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권리 운동과 함께 성장하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다문화교육이 발전하였다. 다문화교육은 학교개혁을 통해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언어에 따른 소수집단 학생들의 교육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대부분에 국가에서는 인종적 계층과 사회적 계층을 반영하여 교육을 하고, 이러한 계층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다(Banks 외, 2014: 7-8).

다문화교육의 원리, 개념,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한다(Banks & Banks, 2004). 주된 목표는 학교를 개혁하여 모든 학생이 민족적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세계에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각자 민족적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책무를 유지하면서 국가시민문화 내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문화자본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교육경험을 제공한다(Banks, 2008; Banks 외, 2014: 7-8).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차원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차원이 언급된다. 첫째, 교과내용의 통합, 둘째, 지식구성의 과정, 셋째, 편견의 감소, 넷째, 공평한 교육, 그리고 다섯째, 권한을 부여받은 학교문화와 사회교육이다. 교과내용의 통합이란 교사들이 어느 정도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예시를 교수에 사용하느냐를 의미한다. 지식구성의 과정은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한 학문분야 내 암시적인 문화적 가정, 사고틀, 관점, 그리고 편견이 어떻게 지식 구성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탐구하고 알아내도록 돕는 것이다. 편견의 감소는 인종에 대한 태도가 학생들의 인정에 대한 태도의 특성과 교수방법과 교수자료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공평한 교육은 교사들이 다양한 인종, 문화, 성별, 사회적 지위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을 부여 받은 학교문화와 사회구조는 다양한 인종, 민족 그리고 성별집단의 학생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특성에 따른 소집단의 구성, 소집단에 대한 명칭부여, 스포츠 참여, 학업성취도의 불균형, 교직원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이다(Banks 외, 2014: 10).

다문화주의에서 비롯된 다문화교육의 중심에는 소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운동으로서 인정투쟁이 놓여있다. 다문화교육은 교육의 개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그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의 원리, 개념, 목표와 차원들은 다문화교육이 인정투쟁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분석은 다문화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로, 다문화교육은 문화상대주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교육을 할 때 가장 큰 오해는 모든 문화를 단순히 인정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다문화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소수문화를 소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안점을 둔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에서 지향하는 인정이란 개별성과 통일성을 통해 변증법적인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일자적 존재로서의 인정을 뜻하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각문화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다문화교육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정체성 형성에 핵심에는 공동체와의 대화가 있다. 이 공동체는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다문화교육은 이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수 문화가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에 대한 유기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체성 형

성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지역 사회 공동체와는 분리되어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다문화교육은 추상적인 제안에 그치게 된다.

셋째로, 다문화교육은 이질적인 소수문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교육이기도 하다. 다문화교육은 한국 문화에 적응을 위한 소수문화인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이질성을 어떻게 수용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학교를 개혁하여 모든 학생이 민족적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세계에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시키고자 한다. 어떤 문화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타자의 이질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타자 없이는 총체성에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지양을 통해서 타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총체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질성은 자아 정체성 형성에 꼭 필요한 요소이고, 이질적인 소수를 거부하기보다 받아들일 때 개인의 정체성이 총체적으로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다.

헤겔의 인정이론은 다문화교육이 상대주의적이거나 공동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거나 주류 문화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킨다. 오히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를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용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또한 이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은 소수문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현대의 불안한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는 모든 다수문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개인들이 타자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진정성(authenticity)를 바로 확립해 나갈 때, 개인들은 현대사회가 주는 불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즉, 다문화교육은 소수 문화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수의 현대인들을 자기진정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실이 인지되어야 한다.

## Ⅳ. 맺음말

1990년대 이후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유입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국가주도의 연구로 인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만들어 졌고, 국가와 지역 사회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도 다문화교육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은 소수문화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전개되는 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이런 인식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다. 이질적 요소를 수용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적 성찰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며,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 재점검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을 문화상대주의나 혹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소로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를 찾고 한국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으로 이해하고, 소수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은 하나의 언어를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택하였으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 볼 때, 이질적 요소를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를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 참고문헌


강성화 (2004). 헤겔『정신현상학』, **철학사상 별책,** 3(17),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김의수(2002). 문화 다원주의와 인문학 교육의 미래, **철학과 현실,** 52, 22-84.

남기호 (2009). 헤겔 인정 이론의 구조. **사회와 철학,** 18, 217-250

남기호(2008). 헤겔의 '사랑' 개념과 그 철학적 위상변화, **시대와 철학,** 19(4), 81-129

백종현 (2000). 헤겔에서 이성의 현상학. **철학사상,** 11, 251-267.

백훈승 (2006). 찰스 테일러와 헤겔에 있어서 자아정체성 및 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100, 355-383

송재룡 (2009).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사회이론,** (35), 79-106.

설한(2005).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recognition)의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21(2), 181-213.

오승은 (2012). 찰스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 HOMO MIGRANS, 56, .5-10

Abbey, Ruth(1999). Charles Taylor's Politics of Recognition: a Reply to Jonathan Selow. *Political Studies.* 47(4). 710-714.

Abbey, Ruth (2000). *Charles Taylor.*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Banks, A. & Banks, A. M. (Eds.) (2004).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Banks, J.A. (Ed.)(2014).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 교육의 세계동향 . 방명애, 김혜인 역. 시그마프레스.

Bauman, Zygmunt(1991). *Modernity and Ambivalence.* Cambridge : Polity.

Bauman, Zygmunt·Keith Tester(2001). *Conversation with Zugmunt Bauman* Cambridge: Polity.

Hegel, G. W. F. (2005). *Phänomenologie des Geistes,* **정신현상학 I.** 임석진 역. 서울: 한길사.

Hegel, G. W. F. (2005). *Phänomenologie des Geistes,* **정신현상학 II.** 임석진 역. 서울: 한길사.

Honneth, Axel (2011). *Kampf um Anerkennung : [zur moralischen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문성훈역. 서울: 사월의 책**

Kymlicka, Will. (2006).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역. 서울: 동명사.

Ralf Ludwig(Ed.)(2002). *Hegel für Anfäng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쉽게 읽는 헤겔) 정신현상학.** 이동희역. 서울: 이학사.

Taylor, Charles (1992).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Taylor, Charles (1994).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ed. with intro.) *Multicul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5-73.

Taylor, Charles (1992).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Taylor, Charles(1985). *Human Agency and Language: Philosophical Pap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